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7주일 · 목주기도 성월
제33권 45호(다해) 2013-10-6

[묵상]



겨자꽃과 씨앗 ...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만한 믿음이면 한 마디의 말로도
돌무화과나무는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지푸라기 하나도 제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인가요?

돌무화과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누구에게도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을 복종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복종시키고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듯이
믿음이란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그저 했을 따름이라며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황혜민, 김기준 안젤라
주 일	(연) 이명자 토사, 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유정복 베네딕도,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송봉규 요셉 & 송공광 카타리나
낮 미사	(생) 이윤조 클라라, 김로베르토, 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김기준 안젤라, 이유순 발바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하바쿱 예언서(Habakkuk) 1,2-3;2,2-4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1,6-8.13-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복 음 루카(Luke) 17,5-10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We Fall Down	240	194
봉헌	269	268	254
성체	주님께서는	289	304
파견	321	321	321

올바른 성모신심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1)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은 마리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당시 종교 사회에서 퀴벨레(Kybele), 이스타르(Istar), 디아나(Diana)등을 여신으로 섬기던 이방인들의 여신 숭배와 분명히 구별된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무엇보다 신앙의 여인이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신학자들은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예수님의 탄생 예고’(루카 1,26-38)를 마리아를 위한 황금 자료로 간주한다.

교부들은 이 신앙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불순종이 극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를 ‘새 하와’로 일컫기까지 하였다. 이 신앙의 응답은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열정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피조물 인간의 전형적 모범이 되게 한다. 사실 마리아의 모든 특은은 이 신앙의 응답에서 시작한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특권의 호칭 역시 이 신앙의 응답에서 유래한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고 따르셨던 첫 번째 사람이시다. 이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잘 드러난다. 카나에서의 기적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잔치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신학자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라고 지시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시나이 산의 계약에서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탈출 19,8; 24,3,7)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과 비교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기적의 협력자 이상으로 세상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고백해야 할 신앙을 앞서 고백하는 역할에 비유하기도 한다.

성경은 엘리사벳 성녀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루카 1,45).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서 단지 자신을 육체적으로 낳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이심을 명확히 선언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48-50). <◆계속>

잘 익은 신앙인

가을 날씨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저녁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햇살이 썩 반갑지 않지만, 그 덕분에 곡식과 과일은 잘 익어 갑니다. 잘 익어야 할 것은 곡식과 과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햇살'을 듬뿍 받아 잘 익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다양한 통로로 사랑과 은총을 선사해 주십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 충고와 경고를 전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일곱 성사 안에 계시면서 은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을 되찾았듯이(루카 24,13-27 참조), 이웃 사람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햇살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은 잘 익게 됩니다.

곡식과 과일이 잘 익으면 빛깔이 곱습니다. 잘 익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겸손이란 아름다운 빛깔을 냅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겸손한 신앙인은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잘난 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일을 할 힘을 주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필립 2,13 참조)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은 자기자랑과 교만에 빠지기 쉽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참된 겸손을 보입니다.

제1독서는 잘 익은 신앙인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바쿱 예언자는 혹독한 시련을 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느님께 울부짖습니.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시간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떼를 쓰고 심술을 마구 부리지만,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때와 하느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제2독서는 잘 익은 신앙인의 특색으로 충실함을 강조합니다. 에페소 교회의 책임자인 티모테오는 공동체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의 스승인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격려의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본당이나 단체에서 봉사직무를 맡아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잘 익어서 때깔이 좋은 곡식과 과일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과 인내, 충실이라는 좋은 빛깔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의사, 약사, 간호사, 원목자, 남녀 수도자, 병원 운영자와 자원 봉사자 등 의료인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그들에게 인간 생명의 수호자와 봉사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89항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 제2기 천주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 첫모임 : 10월13일(주일) 오후 3시(매주일 5주간)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
 - 장소 : LA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 소개 : 오늘주일(6일) 백삼위분당 낮미사후 전명재 패트릭 진행팀장이 아버지학교를 소개합니다.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등록비 : \$120
- ◆ 이해인 수녀님과 함께하는 힐링 토크
"삶과 기도의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 일시 : LA 성 바실 한인천주교회 10월10일(목) 오후 7시
OC 성 토마스한인천주교회 10월16일(수) 오후 7시
 - 강사 : 이해인 클라우디아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회)
 - 주최 :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 & 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아침미사후(첫,둘째주 강당)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젤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 미주한인의날(2014년) 기념 미술대회 개최 작품접수
 - 주최 : LA한국교육원
 - 참가대상 : 유치원~12학년까지
 - 작품주제 :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
 - 제출기간 : 10월26일까지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LA, CA 90005)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 바람
 - 발표 : 11월초 신문, 교육원 홈페이지
 - 시상식 : 2014년 1월11일(토) LA교육원 정실관
 - 문의 : ☎(213)386-3112

을 추후감사절 합동 야외미사는 본당 '백삼위성당'이 주관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협조합니다.

-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장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 26차 남가주성령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 비치중
- ◆ 친교자리 배식때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순서를 양보합니다.
 - 매주일 낮미사후 소공동체가 봉사하는 친교자리에서 점심 나누기로 교우들간의 우의를 다집니다. 간혹 줄서서 기다리고 음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 주보 광고를 후원해 주시는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6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 주일학교(6학년 떡볶이)
 - 10월13일(주일) : 전신자 점심나누기
토런스 서 1/3반(소고기무국)
* 주일학교 수업없음(폴립버스데이 연휴)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박선희 최태훈 박종열 유경자 강인모	장명진 임한나 이일랑 오신재 이석진	장춘수 강태홍 주대종 안종연 김민석	이민상 오수인 송기철 정열모 김 욱	박정자 김현숙 오일순 이병우 고천용	이근태 황지영 임분필 김성택
합계 : \$3,395						
주일미사 헌금 : \$2,967						

성전헌금	박선희 강태홍 유경자 김민석	장춘수 오수인 안종연 김 욱	이민상 김현숙 정열모 고천용	이근태 황지영 이병우	최태훈 이일랑 강인모	임한나 주대종 이석진
합계 : \$3,475						
감사헌금 : 이원규 & 김경원						

공지사항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 주일학교 초등부 Back to School

- 날짜 : 오늘주일(6일)
- 시간 : 오전 10시30분~오전 11시(각학년 교실)
- 대상 : 유치원~6학년 학부모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 ☎(310)780-8895

◆ 10월13일 주일 학생미사는 한국어로 집전합니다.

- 콜럼버스데이 연휴관계로 어른들이 전례를 맡습니다.

◆ 주일학교 고등부 Back to School

- 날짜 : 10월20일(주일)
- 시간 : 오전 10시30분~오전 11시(강당)
- 대상 : 9학년~12학년 학부모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주임 ☎(310)709-3343

◆ 주일학교 앙상블 단원 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6학년 이상
- 모집분야 : 현악기, 관악기
- 오디션 : 오늘주일(6일) 낮 12시 2층 교사실
- 문의 : 크리스티나 진 음악교사 ☎(310)781-0856

◆ 주일학교 찬양밴드 음악교사 모집

- 자격 : 음악에 관심있는 가톨릭 신자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주일학교 고등부 F.I.G.S. Lock-In

- 날짜 : 10월11일(금) 오후 6시~12일(토) 오전 9시
- 장소 : 본당
- 참가비 : 무료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주임 ☎(310)709-3343

◆ 주일학교 중등부 F.I.G.S. Jr. Lock-In

- 날짜 : 11월8일(금) 오후 6시~9일(토) 오전 9시
- 장소 : 본당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스텔라 남 중등부 주임 ☎(310)918-3324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10/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0/12(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0/11(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10/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999-5808 10/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617-1132 10/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김준 방지겨 968-8280 10/18(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951-4710 10/9(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0/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병연 리디아 404-1607 10/2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금자 데레사 804-7645 10/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10/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910-9943 10/11(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김병록 요셉 818-1799 10/11(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10/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남가주 소식

◆ 성 프란치스코 성당 본당의 날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웃 성프란치스코 성당이 본당의 날을 맞아 음악회를 엽니다.

- 일시 : 오늘주일(6일) 낮 12시~오후 2시30분
- 장소 : 2040 W. 아테시아 불러바드, 토런스
- 문의 : ☎(310)324-8159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96주년 기념행사 및 미사

- 일시 : 10월13일(주일)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성당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 문의 : 김국대 베드로 ☎(213)255-6336

☺ 서로 인사 합니다. ☺

2013년 전교의 달 담회문 요약

“행복하십니까?”

1. “행복하십니까? 살맛 나십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남미 여러 나라 국민들은 70%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10%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에 속한다는 이 땅에서 세계 최고에 이르게 된 자살률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리운 절망의 검은 그림자를 잘 대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1%를 위한 99%”라는 말이 잘 나타내듯, 우리 사회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사랑이 없는 삶을 이어가거나 거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다면, 사람은 마음속 깊이 기쁨을 간직하고 영웅적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는 순간 삶은 무거운 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울한 마음에서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요한 14:27)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2천 년 교회 역사도 같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히브 12:1) 있습니다.

2.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주신 희망을 우리는 자신 안에만 가두어 둘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유럽의 대표적 지성인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 신앙인도 아닌 어떤 분은 외쳤습니다. “콘스탄티노 대제가 우리에게서 훔쳐간 희망을 지금까지 장물로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 주어라. 예수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재산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로제 가로디) 예수라는 분을 만나 그 이전까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필리 3:8 참조) 바오로도 외쳤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로마 8:24)

그리고 그분 생전에 최측근의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까지를 몸소 체험하고는, 참으로 사는 길,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언하며 온 인류에게 외칩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1요한 1,1-2)

3. 기쁨을 주는 가르침, 곧 복음을 귀로만 듣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 선포의 기치 아래 열정, 방법, 표현에서 온 교회가 새로움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 나아가 각 분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단순하고 복음적인 언행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1테살 2,13 참조) 함으로써, 우리가 입으로뿐 아니라, 얼굴과 눈빛,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금이 되고, 어두운 사회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오가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 이병호 주교

목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